

# 다른 나라 친구 찾는다면... 템플스테이로 오세요

## 국제선센터 동아시아청소년불자 템플스테이

‘동아시아청소년 불자교류프로그램 템플스테이’를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현조)에서 8월25~29일 개최했다. 세계 젊은 불자들 간의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세계청소년불자연합(WFBY: The 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의 행사로 2007년 일본, 2010년 대만에 이어 올해는 한국에서 열렸다.

서울 신정동에 위치한 국제선센터 7층 금차선원. 깊은 산중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고요하고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간화선을 하는 곳이다. 8월 26일 선원은 고요한 대신 학생들 웃음소리로 시끌시끌하다. 웃음소리 사이로 간간히 영어와 다른 나라 말들도 섞여 들린다. 누구시기에 금차선원에서 떠들 수 있는지 호기심이 발동한다.

참가 청소년들은 국적은 달라도 모두 대만 태국 일본 한국의 CLUB 25 회원이다. CLUB 25는 WFBY의 산하 단체로 전 세계에 지부를 둔 15~25세 이하 불자청소년 모임이다.

국제선센터 국제부 차장 보란 스님은 5일간 진행 되는 행사동안 아이들은 인솔했다. 행사에서는 자기나라 언어로 <반야심경>을 사경하고, 발우공양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의 참선을 배우고 한국 전통불교의 특징인 사시마지(巴時麻旨)를 직접 체험했다. 서울도심 관광과 나라별 자기 자랑으로 일정을 마쳤다.

7층에서는 ‘모자이크 사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다. 다과와 함께 아이들은 잡지 책을 찢어 오려 붙이고 있었다. 조각조각 풀칠해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은 부처님 얼굴이었다. 분홍, 파랑, 주황, 녹색, 노랑 5개의 팀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그림을 받았는데 이것을 한데 모으면 한 폭의 지장 보살도가 완성된다.

“어디서 왔어요?”  
“대만에서 왔어요.”  
대만에서 온 여대생 선완첸(21)은 한국 가수 슈퍼주니어를 좋아하고 그 중에서 특히 동해와 희철을 좋아한다고 했다. 올 4월에는 ‘뮤직뱅크’ 공개방송을 보러 혼자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일주일간 혼자서 서울관광도 한 씩씩한 친구다.

처음에는 영어로 답하던 선완첸 양이 한

국말로 답하기 시작했다. 한국말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 선완첸 양은 텔런트 송해교와 가수 비가 주연한 드라마 ‘풀 하우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10번이나 봤다고 한다. 그 덕에 어지간한 한국말은 다 이해할 수 있고 간단한 한국어 문장도 구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는 어릴 때부터 같은 절에 다니던 친구들이 2010년 대만에서 열렸던 국제청소년템플스테이가 너무 재밌었다고 자랑해 올해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 캠프에 참가한 가장 큰 목적은 한국 현지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것. 앞으로 대만에서 한국 소식을 전하는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며 한국어 실력을 키우는 일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했다.

“저는 태국에서 왔어요. 제 이름은 비(Bee)예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질세라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저는 SS501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 중에서도 드라마 꽃보단 남자의 주인공이었던 김현중을 제일 좋아해요. 김현중 정말 잘생기지 않았나요? 정말 최고예요!” 태국에서 같은 절에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참가한 비 양은 한국 연예인들을 흔히 꿰고 있었다. “저는 소녀 시대를 좋아해요. 노래도 부를 줄 알아요” 하며 일어나서 춤이라도 출기세였다.

동아시아의 한류 열풍을 실감케 했다. 비 양의 친구 메이 양은 다른 대학에 진학했지만 같은 절에 다니던 비 양의 단짝 친구다. 메이 양은 “예전부터 한국에 꼭 한번 가고 싶었어요. 특히, 서울에 온다는 것이 가장 설레었다”고 했다.

점심공양을 마치고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한국에 와서 기쁘다면 친구들이 밖에 나가 구경할 줄 알았는데 다들 템플스테이 관으로 올라갔다. 어제 밤 비행기로 늦게



대만, 일본, 태국에서 온 청소년불자들이 직접 만든 연꽃을 들고 환하게 웃고있다. (왼쪽에서 세 번째)나고야에서 온 탄지 스님은 일본을 대표해 참가했다.

한국에 도착한데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에 불과 경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외학생들이 템플스테이를 하러 왔다고 해서 봐주는 법이 없었다. 이곳은 엄연한 사찰이고 사찰에 왔으면 규칙을 따라야 한다. 한옥의 느낌을 살려 만든 큰 온돌방에는 학생들이 웅기웅기 앉아 쉬고 있었다.

의젓해 보이는 한 학생에게 말을 건넸다.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아 저 한국말 잘해요. 한국말로 하셔도 돼요.”

이번 템플스테이 참가자 들은 한국말을 잘하는 학생들만 선발해서 온 것 같이 다들 한국말들이 늘었다. “아 저는 경주에 있는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을 다니는 학생

입니다. 저는 태국 단마까야선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행사에 태국 바통에 있는 단마까야선원 학생들이 많이 참석한다고 해서 저도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양대 한국어학당에서 여학생수를 마치고 대학원에 입학했다는 그녀의 이름은 캄펜 포렌. 쉽게 펜이라고 부르려며 볼펜을 들어 보이며 웃었다. 그녀는 남방불교를 한국에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CLUB 25 한국지부 친구들도 함께했다. 신목고 2학년 재학 중인 박윤진 양은 학교생활 중에는 이렇게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수 있는 기회가 없어 참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개학해 수업을 놓치는 일이 부담스러웠지만 그 보다 더 큰 것을 얻어 같 것 같다”며 “해외에서 온 또래 친구들과의 대화만으로도 견문이 넓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25살의 젊은 스님이 한명만이 참가했다. 나고야에서 온 다이호 탄지 스님은 지진과 쓰나미 여파로 많이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운을 댔다.

“아버지도 스님입니다. 저는 아버지 절

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스님이 되는 과정이 5단계인데 저는 2단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스님은 한손으로는 종이컵에 연꽃이 될 한지를 풀로 붙이면서 말을 이었다. 스님은 한지로 연꽃 만드는 것은 처음 해본다며 해맑게 웃었다.

발우공양 시간. 국제부 차장 보란 스님이 죽비를 ‘탁’ 내리치자 분위기는 금세 엄숙해 졌다. 여독이 가시지 않아 피곤해 하던 학생들의 눈빛이 초롱초롱 해졌다. 점심 공양시간에 재잘재잘 떠들던 학생들은 온데 간데 없었다. 한국학생이 대표로 먼저 시범을 보였다.

공양에 앞서 스님의 발우공양 설명이 이어졌다. “따로 설거지 없이 이 그릇 그대로 내일 아침에 사용하게 됩니다”고 하자 장내는 잠시 술렁였다. 스님은 “주변 친구들을 자주 보지 말고 오직 내 식사에 집중하세요”라고 주의를 주었다.

본격적인 공양 시간이 시작되자 힐끔힐끔 옆 친구를 보느라 정신이 없다. 처음에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많이 났지만 그것마저도 금세 잦아들었다. 공양이 곧 수행이라는 것을 이해한 탓인지 모두 진지한

자세로 임했다. 처음 해보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음식을 남기거나 물을 끝까지 마시는 일을 어려워하는 이는 없었다.

결코 쉽지 않은 발우공양이 끝이 났다. 보란 스님은 “많이 어려웠죠? 음식은 약입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발우공양이 있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이 더 잘 하리라 기대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 프로그램이 오직 재미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물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렵지만 한국불교를 배우는 중요한 연습”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들은 저마다 꿈을 안고 한국템플스테이에 참가했다. 서울 관광이 목표인 친구도 있었고 한국인 친구를 혹은 해외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학생도 있었다. 대만에 한국의 소식을 전하는 기자로, 한국에 남방불교를 알리는 지도자도 또, 아버지 절을 잘 물려받을 수 있는 훌륭한 스님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했다. 참가자들의 꿈은 각기 다르지만 이번 한국사찰문화 체험을 통해 그 꿈에 한발 더 다가갔기를 기원한다.

천진영 기자



진지하게 발우공양 습의에 임하는 참가자들.



지장보살도의 한 부분을 완성한 김태완 군.



절하는 법을 배우는 태국 학생 비(Bee) 양.

### 부처님 찾아 떠나는 여행 (주)에스케이 마하연투어

**\* 9월 ~ 11월 출발 : 불교성지 단체 문의는 날짜에 상관없이 출발**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특급 139만원, 풍격 149만원, 고품격 159만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특급 149만원, 풍격 159만원, 고품격 169만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특급 169만원, 풍격 179만원, 고품격 189만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특급 169만원, 풍격 179만원, 고품격 189만원)

\* 불포함 : 유류세 200,000, 가이드+기사 팀

**■ 지장/관음 도량 구좌산 | 황산 | 보타산 7일 1,290,000원**  
**■ 지장도량 구좌산 | 황산 5일 990,000원**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티벳 8일 문의**  
**■ 항공일정 티벳 6일 1,590,000원**

\* 불포함 : 유류세 가이드+기사 팀

※ 60일전 조기예약 할인  
 ※ 미얀마에서 하시고자 하는 행사 지원합니다.

수인도 골드라이 앵클 완벽 8대성지 13일 초특급 259만원  
 수인도 베스트 상품 완벽 8대 성지 9일 초특급 239만원  
 수부탄 왕국 시킴 다르질링 11일 요금문의  
 수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수장사 / 장가계 + 천문산 5일 요금문의

\* 전화 주시면 요금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케이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 30년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이 있는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 것 송집합

염주, 단주, 금강저, 반지, 목걸이, 핸드폰줄, 자수정, 호안석, 백옥, 청옥

1번 7~7.4mm 86,000	2번 10mm 109,000	3번 호안석 8mm 39,600	4번 청옥 10mm 54,000	5번 반야반지 34,000
6번 20,500	7번 39,000	8번 30,000	9번 32,000	10번 20,500
11번 20,500	12번 61,000	13번 20,500	14번 48,000	15번 62,000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www.jeweldream.co.kr \* 책자(카타로그)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농협 356-0400-2307-43 예금주 : 주얼드림

NAVER 주얼드림 검색